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향수[†]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2년 3월 12일 접수: 2022년 3월 29일 수정: 2022년 4월 11일 채택)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Hyang-Soo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March 12, 2022; Revised March 29, 2022; Accepted April 11, 2022)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도 J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29일~12월 13일까지 총 2주 동안 총 134부를 회수하여 그 중 126부의 자료를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감성지능($\beta=.349, p=.001$), 문제해결능력($\beta=.255, p=.01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5.1%, 22.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미래 간호사인 자녀의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deter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and look at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e collected 134 data nursing students who are attending J university in C do and analyzed 126 data of them using the SPSS/WIN 22.0 version. The study period lasted two weeks, going from Nov 29 to Dec 13, 2021. The factor influenc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is emotional warmth attitude($B=.349, p=.001$), ($B=.255, p=.018$) with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s881088@jwu.ac.kr)

25.1%, 22.3% of the total explanatory power. It will need to be informed that emotional warmth attitud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when educating for parents is a important factor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children who are future nurses and be used it as a basic data of parenting education for a desirable parental role.

Keywords :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Warmth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Nursing Stuenti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증가된 요구에 맞춰 질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에게 감성서비스[1]와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환자의 요구와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실무적 간호 수행에 있어 정서적 공감과 효과적인 건강문제 처리로 환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환자 중심의 전인간호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체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시점으로, 특히 정서적 공감은 감성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성지능은 환자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그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4]으로, 이는 사람과의 효과적인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의 핵심요소이다[5]. 간호사는 끊임없이 대상자의 감정을 대하는 업무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확히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 또한 통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1].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현장에서 실질적 간호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기관에서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 수행 시 임상실습지의 낯선 환경,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간호문제해결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서툰 기술로 인한 한계, 실수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인관계 경험 부족과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6].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등 심각한 문제에 이른다[7].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감성지능은 긍정적 감성성향으로 작용하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임상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상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9].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10], 다시 말하면,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수행 시 당면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간호진단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수행, 목표에 대한 평가 등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11]. 또한 이 능력은 간호현장에서 빠른 병상회전과 중증도가 높은 환자간호 시에 대상자의 문제와 중재 간 차이를 인식하고 보완하려 할 때 발휘 될 수 있다[12]. 그래서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간호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교육과 일정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실제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해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감성지능도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13] 있으나 이와 같

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이수함에 있어서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간호대학생 간의 개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의 영향 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공감능력, 간호학과 진학 만족도,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임상경력 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14-15].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요인으로는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학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감성지능, 대인관계만족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복원력,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16-20] 등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영향요인이 밝혀졌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며 [21], 이것은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2].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 교육 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및 그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및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 J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비밀 보장, 설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본 수는 119명으로, 자료의 손실과 탈락을 고려하여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rrindell과 Engebretsen[23]이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스웨덴어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척도의 단축형인 EMBU-short 척도를 조한익[2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애정적 양육(2,6,9,12,14,17,19,23 총 8문항), 거부적 양육(1,4,7,13,15,16,21 총 7문항), 과보호적 양육(3,5,8,10,11,18,20,22 총 8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 1점에서 ‘대부분’ 4점까지, 4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다. 애정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 수용적이며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칭찬과 대화를 자주 하는 등 자녀의 기분을 잘 헤아려주는 양육 태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임을 의미한다. 거부적 양육은 자녀를 냉담하고 무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며 신체적 혹은 심리적 체벌을 하는 등의 양육 태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임을 의미한다. 과보호적 양육은 자녀를 과도하게 지시, 통제, 제약하고 간섭하면서 의존심을 부추기는 양육태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임을 의

미한다. 조한익[24] 연구에서 본 도구 신뢰도는 애정적 양육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8, 거부적 양육 .75, 과보호적 양육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 .87, 거부적 양육 .78, 과보호적 양육 .79였다.

2.3.2. 감성지능

본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4]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정현우[25]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감정의 조절, 감성의 사용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였다.

2.3.3.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11]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문제명료화(5문항), 원인분석(10문항), 대안개발(10문항), 계획/실행(10문항), 수행평가(10문항) 등 5개의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능력요소별 9개의 하위요소(문제명료화-문제인식, 원인분석-정보수집, 분석능력, 대안개발-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계획/실행-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수행평가-평가, 피드백)로 각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 5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29일~12월 13일까지 2주간 C도 J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비밀 보장, 설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40부를 배포하여 134부를 회부하였고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절하거나 무응답한 8부를 제외한 12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03명(81.7%)으로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1.30세로, 18~32세의 분포를 갖고 있고 종교는 없다가 83명(65.9%)으로 많았다. 형제자매는 1명이 91명(72.2%)으로 가장 많아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이 29명(23.0%), 0명(외동) 6명(4.8%) 순이었고 형제자매 중 순위는 둘째가 61명(48.4%), 첫째가 55명(43.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69명(54.8%)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는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4명(50.8%)으로 대학 졸업 이상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69명(49.2%)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자영업(사업)·서비스업이 33명(26.2%), 생산(단순노무직)·기술(기능)직이 19명(15.1%), 전문직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43명(34.1%)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무직 35명(27.8%), 자영업(사업)·서비스업 23명(18.3%), 생산(단순노무직)·기술(기능)직 16명(12.7%), 전문직 9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이 84명(66.7%)으로 많았다.

3.2.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정도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과보호적),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만점에 애정적 양육은 $3.11 \pm .66$ 점, 거부적 양육은 $1.30 \pm .41$ 점, 과보호적 양육은 $1.70 \pm .56$ 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5.26 \pm .81$ 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67 \pm .46$ 점으로, 하위 능력요소를 살펴보면, 수행평가가 $3.77 \pm .5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과 실행이 $3.58 \pm .62$ 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Characteristics		n(%) or M±SD
Gender	Male	23(18.3)
	Female	103(81.7)
Age		21.30±1.89
Religion	No	83(65.9)
	Yes	43(34.1)
Number of Siblings	0	6(4.8)
	1	91(72.2)
	2 <	29(23.0)
Birth Order	1	55(43.7)
	2	61(48.4)
	3	10(7.9)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57(45.2)
	More than college graduation	69(54.8)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64(50.8)
	More than college graduation	62(49.2)
Father's Job	Professional	3(2.4)
	Office job	69(54.8)
	Self-employed business, Service	33(26.2)
	Produce-laborer, Technical post	19(15.1)
	Unemployed	2(1.6)
Mother's Job	Professional	9(7.1)
	Office job	35(27.8)
	Self-employed business, Service	23(18.3)
	Produce-laborer, Technical post	16(12.7)
	Unemployed	43(34.1)
Economic Status	High	35(27.8)
	Mod	84(66.7)
	Low	7(5.6)

Table 2. Level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Unit=point)

Variable	M±SD	Rang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warmth	3.11±.66	1~4
Rejection	1.30±.41	
Overprotection	1.70±.56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5.26±.81	1~7
Problem-solving Ability		
Clarifying the problem	3.73±.60	1~5
Cause analysis	3.71±.48	
Alternative development	3.61±.55	
Planning and execution	3.58±.62	
Performance evaluation	3.77±.5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일반적 특성 중 종교여부($t=-2.206$, $p=.02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t=.052$, $p=.959$), 형제자매 수($F=.564$, $p=.571$), 형제자매 중 순위($F=.154$, $p=.858$), 아버지 학력($t=-1.506$, $p=.135$), 어머니 학력($t=-1.045$, $p=.298$), 아버지 직업($F=.310$, $p=.871$), 어머니 직업($F=1.035$, $p=.392$), 경제수준($F=.171$, $p=.8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종교여부($t=-2.056$, $p=.042$), 아버지 학력($t=-2.929$, $p=.004$), 어머니 학력($t=-2.730$,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t=.950$, $p=.344$), 형제자매 수($F=.748$, $p=.475$), 형제자매 중 순위($F=.003$, $p=.997$), 아버지 직업($F=.480$, $p=.751$), 어머니 직업($F=.143$, $p=.966$), 경제수준($F=.099$, $p=.90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인 애정적 양육, 거부적 양육, 과보호적 양육과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감성지능과 애정적 양육($r=.415$, $p<.001$)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통의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r=-.310$, $p<.001$)과의 관계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과보호적 양육($r=-.198$, $p=.026$)과의 관계는 매우 낮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과보호적 양육이 낮을수록 감성지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과 애정적 양육($r=.321$, $p<.001$)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r=-.224$, $p=.012$)과의 관계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r=.621$, $p<.001$)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감성지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여부(없다=0, 있다=1)는 가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인 애정적·거부적·과보호적 양육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5.33±.88	.052 (.959)	3.76±.42	.950 (.344)
	Female	5.32±.82		3.66±.47	
Religion	No	5.15±.81	-2.206 (.029)	3.61±.46	-2.056 (.042)
	Yes	5.48±.80		3.79±.44	
Number of Siblings	0	5.36±.87	.564 (.571)	3.63±.69	.748 (.475)
	1	5.30±.82		3.71±.43	
	2 <	5.13±.80		3.59±.50	
Birth Order	1	5.22±.83	.154 (.858)	3.68±.49	.003 (.997)
	2	5.30±.80		3.67±.43	
	3	5.30±.91		3.68±.50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5.14±.74	-1.506 (.135)	3.55±.44	-2.929 (.004)
	More than college graduation	5.36±.87		3.78±.45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5.19±.75	-1.045 (.298)	3.57±.42	-2.730 (.007)
	More than college graduation	5.34±.87		3.78±.48	
Father's Job	Professional	5.29±.40	.310 (.871)	4.01±.46	.480 (.751)
	Office job	5.25±.80		3.67±.45	
	Self-employed business, Service	5.33±.85		3.67±.51	
	Produce-laborer, Technical post	5.25±.78		3.62±.43	
	Unemployed	4.69±2.12		3.67±.31	
Mother's Job	Professional	5.47±.96	1.035 (.392)	3.74±.22	.143 (.966)
	Office job	5.30±.77		3.67±.38	
	Self-employed business, Service	5.46±.81		3.72±.54	
	Produce-laborer, Technical post	4.99±.76		3.65±.51	
	Unemployed	5.19±.84		3.65±.50	
Economic Status	High	5.25±.82	.171 (.843)	3.68±.47	.099 (.906)
	Mod	5.28±.81		3.67±.45	
	Low	5.09±1.007		3.75±.58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f Emotional warmth, Rejection, Overprotection,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solving Ability

Variable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r(p)				
X ₁	1	-.600 (.000)	-.211 (.018)	.415 (.000)	.321 (.000)
X ₂	-.600 (.000)	1	.548 (.000)	-.310 (.000)	-.224 (.012)
X ₃	-.211 (.018)	.548 (.000)	1	-.198 (.026)	-.129 (.150)
X ₄	.415 (.000)	-.310 (.000)	-.198 (.026)	1	.621 (.000)
X ₅	.321 (.000)	-.224 (.012)	-.129 (.150)	.621 (.000)	1

X₁; Emotional warmth X₂; Rejection X₃; Overprotection X₄; Emotional Intelligence
X₅; Problem-solving Ability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4.184	.593		7.051(.000)
Religion(Yes)	.217	.141	.127	1.534(.128)
Emotional warmth	.433	.130	.349	3.340(.001)
Rejection	-.078	.242	-.039	-.323(.748)
Overprotection	-.140	.144	-.096	-.973(.332)

R²=.251, F=7.594, p<.001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선, 상관계수 r의 절대값이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453~.967로 0.1 이상 범위에 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4~2.207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15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594, p<.001).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정적 양육(β =.349, p=.001)으로, 이 모형의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일수록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여부(없다=0, 있다=1), 아버지 학력(고졸 이하=0, 대학 졸업 이상=1),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0, 대학 졸업 이상=1)는 가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인 애정적·거부적·과보호적 양육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solving Ability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3.117	.341		9.139(.000)
Religion(Yes)	.077	.084	.080	.920(.359)
Father's Education(More than college graduation)	.136	.094	.147	1.436(.154)
Mother's Education(More than college graduation)	.138	.090	.151	1.533(.128)
Emotional warmth	.178	.074	.255	2.389(.018)
Rejection	-.045	.139	-.040	-.322(.748)
Overprotection	-.062	.083	-.076	-.751(.454)

$R^2=.223, F=4.603, p=.000$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선, 상관계수 r의 절대값이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452~.907로 0.1 이상 범위에 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03~2.213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16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603, p<.001$).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정적 양육($\beta=.255, p=.018$)으로, 이 모형의 설명력은 22.3%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일수록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및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차후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정도는 4점 만점에 애정적 양육은 3.11점, 거부적

양육은 1.30점, 과보호적 양육은 1.7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배태산[26]의 2.72점, 1.46점, 1.96점과 구세정[27]의 2.79점, 1.38점, 1.97점과는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지만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양육과 과보호적 양육보다는 애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는 달라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본 홍주영, 이소영[28]의 연구에서도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애정적 양육이란,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수용하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칭찬과 대화를 자주 하는 등의 양육태도를 갖는 것으로[29],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30],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고[29]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수용적 태도와 좋은 대인관계를 통한 질적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5.2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선영, 김태희, 홍소현, 박진주, 전아영, 김현주[32]의 3.62점(5점 만점), 박은주[33]의 5.0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각하여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 [34]으로, 간호업무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인 및 타 부서 직원 등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대상자의 정신적·심리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으로 감성지능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활용하고 자아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32]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승희[18]의 3.64점, 박주영, 우정희[12]의 3.66점과 유사한 결과이지만, 김지현, 권경자, 이승희[17]의 3.56점, 김미영, 변은경[19]의 3.11점, 김정민, 최혜옥[20]의 3.5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제해결능력이 대인관계, 적응, 학과선택 이유, 전공만족도, 수업만족도, 주거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12,17,19], 연구들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대상자에게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10], 임상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이란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정확히 사정하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문제해결 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과보호적)간의 관계는 애정적 양육($r=.41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통의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r=-.310, p<.001$)과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과보호적 양육($r=-.198, p=.026$)과는 매우 낮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과보호적 양육이 낮을수록 감성지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진희[3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 때 감성지능이 많이 발달하였다는 결과와 유사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세연[36]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태도일수록 정서지능은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애정적 양육($r=.321, p<.001$)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r=-.224, p=.012$)과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을 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본 한승희[37]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 성취적인 양육태도일수록 자녀는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기술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동시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문제해결능력의 역량이 필요하므로, 부모 교육 시 부모의 애정적 양육이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3%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12-13] 훈련과 교육으로 향상되는 정도에서 대상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변수 외에도 또 다른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부모 교육 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감성지능 및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교육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및 이들 변수 간의 관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만점에 애정적 양육은 $3.11 \pm .66$ 점, 거부적 양육은 $1.30 \pm .41$ 점, 과보호적 양육은 $1.70 \pm .56$ 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5.26 \pm .81$ 점,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67 \pm .46$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과보호적 양육이 낮을수록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요인은 두 종속변수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양육 태도를 측정하였으나 추후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어 각각의 양육태도가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간호학생에게 요구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역량인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D. Y. Bae, H. S. Kim, S. S. Kim, Y. J. Kim,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Job Engag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3, pp.93-103, (2019).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093>
2. H. R. Nam, Y. M. Cho, "Effects of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1, No.1, pp.37-45, (2007).
3. E. J. Oh, M. H. Lee, S. H. Ko,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on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4, pp.283-293, (2016).
DOI :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283>
4.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pp.243-274, (2002).
5. A. C. H. McQueen,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7, No.1, pp.101-108, (2004).
DOI :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69.x>
6.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7.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14-23, (2010)
8. G. Benson, J. Ploeg, B. Brown, "A cross 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1, pp.49-53, (2010).

- DOI : <https://doi.org/10.1016/j.nedt.2009.06.006>
9.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71-579, (2013).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71>
 10. P. P. Heppner, C. J. Krauskopf,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15, No.3, pp.371-447, (1987).
DOI : <https://doi.org/10.1177/0011000087153001>
 11. S. J. Lee, Y. K. Jang, H. N. Lee, K. Y. Park, *Development of Life competencies tool: Based o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3).
 12. J. Y. Park, C. H. Woo,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good cla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185-197, (2020).
 13. D. Goleman,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8).
 14. J. H. Yu, Y. M. Lee, "Factors in fluenc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y Convergence and Application*, Vol.20, No.5, pp.385-393, (2017).
DOI : <https://doi.org/10.21289/KSIC.2017.20.5.385>
 15. Y. I. Kim, "The effec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psychological well-be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a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504-509, (2020).
 16. D. H. Kim, J. Y. Park, N. Y.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3, 1551-1563, (2012).
 17. J. H. Kim, K. J. Kwon, S. H.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295-307,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4.295>
 18. S. H. Han,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5, 245-254, (2017).
DOI :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53>
 19. M. Y. Kim, K. B. Eun,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rning Motiva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 pp.376-383, (2019).
 20. J. M. Kim, H. O. Choi, "The Convergence Effect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1, pp.457-465, (2022).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1.457>
 21. M. Y. Huh,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22. W. C. Becker,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ve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23. W. A. Arrindell, A. A. Engebretsen,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 *Psychotherapy*, Vol.7, No.4, pp.262-266, (2000).
DOI :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
24.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4, pp.269-287, (2011).
 25.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7).
 26. T. S. Bae, *The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Master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2020).
 27. S. J. Goo,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Master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16).
 28. J. Y. Hong, S. Y.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Sexual awareness toward Marri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1283-1297, (2019).
 29. P. H. Mussen, J. J. Conger, J. Kagan, A. Husto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1984).
 30. H. J. J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1-9, (2013).
DOI :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2.001>
 31. N. L. Collins,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644-663, (1990).
DOI : <https://doi.org/10.1037/0022-3514.58.4.644>
 32. S. Y. Kim, T. H. Kim, S. H. Hong, J. J. Park, A. Y. Jeon, H. J. Kim,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2, pp.577-592, (2017).
DOI :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34>
 33. E. J. Park.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8).
 34.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Education Psychological terminology dictionary*, Hakjisa: Seoul, (2000).
 35.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6).
 36. S. Y. Kim, *The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of Mothers and Literary Environmen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Master dissert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19).
 37. S. H. Ha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Social Problem*, Master disser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2012).